

<서평>

## 『성서 히브리어 문법』

(주옹- 무라오카, 김정우 역, 서울: 기혼, 2012)

유윤중\*

### 1. 시작하는 말

히브리어 문법책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처음 배우는 사람을 위해 쓴 입문서이고, 또 다른 하나는 히브리어를 아는 사람이 더 깊은 공부를 위해 참고로 할 수 있는 참고용 도서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입문서는 번역 및 직접 쓴 수십 종류의 교재가 나와 각 신학교에서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지만, 깊이 있게 서술한 ‘설명형 참고 도서로서의 히브리어 문법책’은 독일 전통의 GKC를 번역한 『게세니우스 히브리어 문법』 신윤수 역(서울: 비블리아 아카데미, 2003)이 전부다. 그런 의미에서 김정우의 이번 번역 출판은 앞으로 한국의 히브리어 독자들의 히브리어 학습과 성서 연구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 한국의 구약 성서학계에 새로운 이정표를 쌓을 기념비적 작업임에 틀림없다.

1960년대 이후 출판된 ‘설명형 참고 도서로서의 히브리어 문법책’은 일반적으로 위에서 언급한 두 권의 책 외에 미국의 학자들인 B. K. Waltke & M. O'Connor, *An Introduction to Biblical Hebrew Syntax* (Winona Lake, Eisenbrauns, 1989); 이스라엘 학자 Joshua Blau의 *A Grammar of Biblical Hebrew* (1993) 및 최근의 *Phonology and Morphology of Biblical Hebrew: An Introduction* (Eisenbrauns, 2010); 남아공의 van der Merwe, Naudé, Kroeze, *A Biblical Hebrew Reference Grammar* (Sheffield, 1999); 캐나다의 Ronald J. Williams, revised and expanded by John C. Beckman, *William's Hebrew Syntax* (University of Toronto Press, 2007) 등이 있다.<sup>1)</sup> 각각의 책들은 나름대로의 장

\* 평택대학교 피어선 신학전문 대학원 교수, 구약학.

1) 통사론과 관련된 다른 책들은 다음을 보라. Francis I. Andersen, *The Hebrew Verbless Clause in the Pentateuch*, JBL Monograph Series 14 (Nashville: Abingdon Press, 1970); L. McFall, *The Enigma of the Hebrew Verbal System* (Sheffield: Sheffield University Press, 1982); Alviero

단점과 특징을 가지고 있으므로, 한두 마디로 평가하기는 쉽지 않다.

‘참고 도서로서의 히브리어 문법책’은 워낙에 방대한 자료를 담은 작업이 필요한 까닭에 당대에 이루어질 수 없다. 1910년에 출판된 GKC는 28판을 거듭하면서 여전히 성서 히브리어 참고도서의 고전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 글에서 소개하고자 하는 『성서 히브리어 문법』은 주옹(Paul Joüon, 1871-1940)이 쓴 1923년의 프랑스어판<sup>2)</sup>을 무라오카(T. Muraoka)가 영어로 번역하면서, 수정하고 덧붙여 1993년에 출판했다가,<sup>3)</sup> 개정 작업을 거쳐 2006년에 수정판이 출판되었다.<sup>4)</sup> 이 책의 기본적인 뼈대는 주옹의 불어 저서에 의존한다. 무라오카는 그 뼈대를 영어로 번역하면서 그 자신의 이론에 따라 수정하기도 하며, 최근까지의 연구 성과를 반영해 살을 붙였다. 약 80년간 이루어진 히브리어 연구 성과를 반영해 개정 작업을 이루어냈다. 주옹의 『성서 히브리어 문법』 자체로서도 고전으로서의 가치가 충분하지만, 불어로 되어 있어서 단지 소수의 전문가만이 접근할 수 있었다. 하지만, 무라오카에 의하여 영어로 번역되면서 더 전문적이며 풍부한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더 많은 독자를 확보하게 되었다. 현재까지 출판된 히브리어 문법책 가운데는 가장 방대한 분량이다. 이번에 한국어로 번역 출판된 책은 2006년에 출판된 최신 수정판에 대한 것이다. 따라서 가장 방대한 히브리어 문법책을 한국어로 번역한 것이다. 번역자가 서문에서 밝힌 대로 이 번역은 10년이나 걸릴 정도로 지루하고도 고통스런 작업의 결실이다. 내용도 난해할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서도 수많은 언어와 언어학적 지식을 요구하며, 히브리어에 대한 용어들도 아직 우리말로 잘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본 서평에서 서평자는 서론과 결론을 제외하고,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고자 한다. 먼저 이 책의 구성에 대한 개괄적 소개이다(2장). 둘째, 주옹-무라오카의 책에서 설명된 사항에 대한 평가이다(3장). 셋째, 김정우 교수의 우리말 번역에 대한 평가이다(4장).

## 2. 구성

---

Niccacci, *The Syntax of the Verb in Classical Hebrew Prose*, W. G. E. Watson, trans., JSOTSS 86 (Sheffield: JSOT Press, 1990).

2) Paul Joüon, *Grammaire de l'Hébreu Biblique* (Rome: Institut biblique pontifical, 1923).

3) Paul Joüon, T. Muraoka, *A Grammar of Biblical Hebrew* 2 vols (Roma: Editrice Pontificio Instituto Biblico, 1993).

4) Paul Joüon, T. Muraoka, *A Grammar of Biblical Hebrew* (Roma: Editrice Pontificio Instituto Biblico, 2006).

이 책은 크게 4개의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즉 서론, 제1부: 철자법과 음성론, 제2부: 형태론, 제3부: 구문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론에서 이 책은 성서 히브리어 문법의 재구성의 목표를 주후 7세기경 티베리아 학파의 유대인 학자들이 이해했던 성경 원어 문법으로 제한한다.<sup>5)</sup> 후에 마소라라고 불리는 이 유대인 학자들은 성서 원문을 보존하고 전수하기 위해 모음기호를 만들어 붙여 정확한 발음의 보존에 애썼다. 이어서 히브리어가 셈어 가운데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개괄적으로 살핀 다음, 성서 히브리어의 역사, 히브리어 문법의 역사를 간략히 소개한다.

제1부는 철자법과 음성론을 다루고 있다. 철자법은 자음과 모음의 형태에 관한 것이다. 음성론 혹은 음운론은 소리와 관련되어 있다. 음성론은 소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과학적으로 연구하며, 음운론은 소리의 조직과 역사적 변천 과정을 다룬다. 본서에서는 음성론과 음운론의 양 영역을 다룬다. 본서에서 철자법은 §5-16, 음성론은 §17-33에 걸쳐 다양한 영역을 다룬다. 자음을 언어학적 분류에 따라 다룰 뿐만 아니라, 현대의 영어, 그리스어, 이탈리아어, 아랍어, 불어, 독일어, 현대 히브리어 등과 비교하면서 정확한 음가를 제시한다. 모음의 설명에 있어서, 저자는 티베리아 히브리어에서 음량은 음소적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단지 음색만 나타낸다고 보았다. 즉 티베리아 니크다님은 일곱 개의 음색을 표시한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은 주옹의 주장을 뒤집는 20세기의 언어학적 이론을 반영한 것이다. 모음을 표시하는 자음문자는 음색을 나타내기도 하며, 음량을 표시한다고도 보았다. 그러나 음량의 표시에 있어서 규칙적이지 않으며, 장단 모음으로 함께 쓰이기도 한다. 슈바에 대해 본질적으로 모음 음가가 없는 제로 모음을 표시한다고 주장한다. 음성론은 크게 자음 변화와 모음 변화로 구분해 다루고 있다. 자음의 변화에 관련된 사항은 자음첨가, 자음도치, 자음탈락, 동화현상, 자음중복, 브가드크파트의 마찰음화 등을 서술하며, 모음 변화는 이중모음의 단모음화, 모음탈락, 강세의 이동에 따른 변화, 휴지상태에 따른 변화 등을 다룬다.

제2부는 형태론을 다룬다. 형태론이란 단어의 형성에 관한 이론이다. 단어의 형태가 변하면서 의미가 다양하게 변화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단어의 형태를 명사, 동사, 불변화사로 구분했다. 이 책에서 형태론은 크게 네 부분으로 구분되

5) 성서 히브리어는 주전 1150-165 정도에 걸쳐 쓰였지만, 그 당시에 쓰인 텍스트는 존재하지 않는다. 후에 서기관들에 의하여 계속 필사되어 왔으며,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텍스트는 주후 8세기경에 등장한 마소라라는 그룹이 필사해 보존해 온 것이다. 그러므로 성서 히브리어를 재구성한다는 것은 성서 당시의 시대의 문법과, 이후 마소라까지 전승되어 오는 과정에서 이해된 문법과 마소라의 문법 등의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이 책에서는 마소라의 문법이해를 목표로 재구성한다. 그러나 마소라 역시 당시의 아랍어 전통에 많은 영향을 입고 있었다는 점에서 역사적 진공상태의 성서 히브리어를 보존했다고 볼 수는 없다.

어 있다. 제1장은 정관사와 대명사이다. 정관사의 첨가로 인하여 명사의 형태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가를 설명한다. 제2장은 동사로, 히브리어의 형태변화 가운데 가장 복잡하고 역동적이다. 활용 형태는 단순동작, 강의적 동작, 사역적 동사로 구분하며, 태는 능동, 수동, 재귀로 분류해 서술한다. 규칙 변화를 먼저 설명한 후 불규칙 변화를 설명하는 전통적 설명방식을 취한다. 형태만으로 다 설명될 수 없는 문법적인 사항도 부분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한다. 명사의 형태를 형성하는 방식을 하나의 자음, 두 개의 자음, 세 개의 자음으로 구성된 명사를 설명한 다음 접두 및 접미 형태로 확장해 서술한다. 그다음 복수의 문제 및 연계형의 문제, 그리고 수사를 설명한다. 제4장은 불변화사를 다룬다. 불변화사란 형태에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 품사이며, 이 부분에서는 부사, 전치사, 접속사, 감탄사를 다루고 있다.

제3부는 구문론으로 무라오카의 주 관심영역이며, 현대적 의미의 인도 유럽어의 언어학적 용어와 분류방식을 히브리어에 적용해 분석한다. 이 책의 가장 큰 공헌점은 구문론에 있다. 그런 의미에서 위에서 소개한 왈키 및 오코너의 책과 유사한 면이 있다. 히브리어의 구문론은 2000년 이후 들어 히브리어 연구의 관심을 받고 있다. 형태론이란 단어를 구성하는 형태에 관한 연구인데 반하여, 구문론이란 단어와 단어 사이의 관계에 대한 분석이다. 형태론은 명확한 표지가 드러나 구분이 가능하지만, 구문론은 전후 관계 및 문장 전체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의미를 질문해야 하므로 매우 모호하고 복잡하다. 이 책의 구문론은 시제와 법, 격, 전치사, 명사, 대명사, 일치, 절, 접속사 바브로 8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의 시제와 법은 주제의 복잡함에 따라 가장 긴 분량을 할애하고 있다. 시제나 시상이나라는 전통적인 질문에 대해 두 부분을 동시에 다 포함시켜 설명함과 동시에 2차적인 의미로 양태(modality)의 문제를 다룬다. 성서 히브리어는 시상과 시제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시제와 시상 다양한 형태로 결합되어 있다는 점을 설명한다. 전통적인 바브 연속법에 대해 ‘도치된 시제’(§117, 118)라는 용어로 설명한다. 바브에 대해 단순한 것과 강제적인 것으로 구분하며, 강제적인 것이라면 계승, 결과, 목적의 개념을 전달한다고 보며, 그것은 직설법, 의지법과 관련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즉 바브 연속법을 양태이론으로 설명한다. 제2장의 격은 현재 히브리어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통사론적 구조 속에서 식별가능하며, 주격, 속격, 대격, 동격으로 구분해 논의한다. 제3장은 전치사로 명사 혹은 동사와 관련되었을 때를 다루고 있다. 즉 명사와의 관계와 동사와의 관계라는 일반적인 용법을 소개한 다음, 각론에서 각 전치사마다의 구체적인 의미와 용례를 서술한다. 제4장의 명사에서는 성, 집합적 단수, 중의 단수로 표현된 복수성, 복수형, 정관사, 한정어 문제, 형용사, 수사의 주제로

설명한다. 5장의 대명사에서는 종류대로 지시대명사, 의문대명사, 관계대명사, 인칭대명사, 대명사의 대용어 순서로 다룬다. 제6장은 일치의 주제로 형용사, 인칭 대명사, 동사의 일치의 문제를 다룬다. 제7장에서는 구문론의 가장 난제라고 할 수 있는 절을 일반절과 특수절로 구분해 다룬다. 일반절은 명사절과 동사절로 구분해 설명하며, 특수절은 실명사절, 관계절, 상황절, 부정절, 의문문, 감탄절, 기원절, 단언절, 저주와 맹세의 절, 시간절, 조건절, 목적절, 결과절, 인과절과 설명절, 양보절, 반의절, 예외절, 비교절, 분리절로 구분하여 설명한다. 제8장에서는 접속사 바브가 구문론과 연결된 주제를 다룬다. 즉 귀결절에서의 바브와 접속사 및 비접속사 구문으로 구분해 설명한다.

### 3. 주옹-무라오카의 『성서 히브리어 문법』에 대한 서평

#### 3.1. 서론, 철자법과 음성론

히브리어 문법의 정의에서 무라오카는 주후 7세기 티베리아 학파의 유대인 학자들이 이해했던 히브리어 문법의 재구성이라고 전제한다 (pp.1-2). 그 시대에 재구성된 히브리어 이해가 가장 포괄적이며 완성된 형태를 띠고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 전제는 이 책의 장단점을 동시에 드러낸다. 즉 1000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을 배제하고 공시적 관점에서 서술하겠다는 것은 히브리어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소홀히 다룰 수밖에 없다는 단점을 지닐 수밖에 없다. 아울러 오랜 역사적 과정 속에서 히브리어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 셈어, 이집트어, 히타이트어 등과의 관련성을 반영하는 데도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그러나 현재 주어진 텍스트 내에서 다양성을 찾아내고 그 차이를 성서 히브리어 내에서 찾아낸다는 점은 성서 히브리어만의 특징을 드러내는 데 유용한 방법이다. 따라서 이 책의 특징은 성서 히브리어를 성서 내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고자 가급적 기술적이며 설명적으로 서술하는 방식을 취한다는 점이다.

성서 히브리어의 역사(p.11)에서 포로 이전과 이후로 구분한다. 이러한 구분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이전의 히브리어인 ‘고대 히브리어’ 혹은 ‘초기 히브리어’를 배제시킨다.<sup>6)</sup> 또한 히브리어 문법의 차이를 발생시키는 요인을 남북간의 방언의 차이와 시문과 산문 언어의 차이로 설명한다. 방언의 차이에 대해 저자는 렌즈스버그(Gary A. Rendsburg) 및 기타 학자들의 연구 성과를 반영하고 있지 않으며, 성서 히브리어의 다양성을 초래한 요인들에 대한 연구 성과를 충

6) David Robertson, *Linguistic Evidence in Dating Early Hebrew Poetry* (Atlanta: SBL, 1972).

분히 반영하고 있지 않다.7)

티베리아 히브리어 모음이 음색(phonetic quality (color))이나 장단(phonetic quantity)이냐의 문제는 히브리어 모음에 대한 논쟁적인 주제이다. 이 부분은 원저자인 주옹의 주장과 무라오카의 주장이 전면적으로 배치된다. 이 부분에 있어서 주옹은 네 개의 모음을 장단으로 설명했지만 무라오카는 히브리어 모음은 장단과는 전혀 관계 없다고 주장함으로써 주옹과는 정반대의 주장을 펴다. 주옹은 12세기의 히브리어 학자 킴히(D. Qimḥi)의 주장에 따라 음운론과 역사적 발전과정을 주장했지만, 무라오카는 티베리아 히브리어 모음은 양의 문제가 아니라, 질의 문제라고 보았다.

20세기에 접어들면서 티베리아 모음체계를 장단이 아니라 음색이라고 주장한 해석이 주를 이룬다. Bergsträsser(1918), Bauer & Leander(1922) 등의 대부분의 학자들은 티베리아 히브리어의 모음체계를 7가지 음색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하고, phonetic quantity(음의 양, 즉 장단)를 나타내는 것은 전혀 아니라고 주장했다. 즉 히브리어 모음은 구강에서 혀의 위치에 따른 다른 음이지 장단과는 관계가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1940년 브로켈만(Brockelmann)은 킴히의 주장에 따라 티베리아 모음체계를 5개의 음색으로 분류하고, 각각 장단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했다. 이 해석이 점차로 확대되어, 오늘날 대부분의 히브리어 문법에 적용되어 a e i o u를 중심으로 단모음, 장모음, 최장모음, 반모음으로 해석하고 가르친다.8) 그러나 무라오카는 티베리아 모음체계는 단지 음색만을 표현하며 길이는 전혀 아니라고 극단적으로 주장한다(p.36). 그러나 마소라는 카메츠를 본질적으로 하나의 음가를 지닌 모음으로 이해했을지라도, 그들은 카메츠 카톤과 카메츠 가돌을 같은 방식으로 다루지 않았다. 그들은 어느 정도 구분이 가능했음을 나타낸다.9) 무라오카 자신도 모음문자의 경우 부분적으로 불완전하게나마 장모음으로 발음되었을 가능성을 인정하며 모음문자가 단모음으로 발음되었다는 주장도 한다(p.49-50). 이것은 무라오카가 전제로 하는 히브리어 모음이 장단과 관계없다는 주장과는 모순된다.

무라오카의 극단적인 주장은 슈바에서도 나타난다. 그는 슈바를 모음 음가가 없는 제로 모음을 표시한다고 주장한다(p.52). ‘제로 모음’이라는 말은 모순된다. 모음 소리가 안다면 모음이 아니다. 그런데 어떻게 모음이라는 용어를 쓸 수 있는가? 그는 현대 히브리어 용법에 따라 히브리어 ‘이쉬므루’에 대하여 [yišmru]와 [yišmeru] 발음이 함께 사용됨을 지적한다(p.55). 후자의 경우는 전

7) 유윤종, “구약성서 히브리어 변이의 구성요인들과 지역방언과의 관계에 관하여”, 『구약논단』 9 (2000), 289-309.

8) Joseph L. Malone, *Tiberian Hebrew Phonology* (Winona Lake: Eisenbrauns, 1993), 151-155.

9) J. Blau, “Marginalia Semitica III”, *IOS* 7 (1977), 14-17.

통적인 슈바의 용법이므로 문제가 없지만, 전자의 경우 세 개의 자음 šmr가 한꺼번에 나오는데 어떻게 슈바(반모음)의 첨가 없이 소리를 낼 수 있다는 뜻인지 이해가 어렵다. 또한 모든 슈바가 무성이라면, ‘브가드크파트’의 두 발음은 음운론적으로 연결이 안된다. 즉 무성슈바나 유성슈바냐에 따라서 브가드크파트의 두 발음은 폐쇄음과 마찰음(stop/spirant)으로 달라지게 되기 때문이다. 저자는 브가드크파트의 설명에서는 슈바 뒤에서는 마찰음화가 일어난다고 설명한다(pp.86-88). 이것은 슈바가 모음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가능하다. 즉 ‘제로 모음’이라는 앞의 주장과 모순된다. 또한 하텡슈바에서 무라오카는 이를 매우 짧은 모음으로 다루며 반모음으로 부를 수 있다고 주장한다(p.55). 이 주장 역시 앞에서 언급한 대로 슈바를 ‘제로 모음’으로 주장한 것과 모순된다.

히브리어 자음과 셈어내의 자음 대응표에서 우가릿어와 아카드어는 빠져 있다(pp.31-33). 아카드어는 가장 오래된 셈어라는 측면에서, 우가릿어는 히브리어와 가장 가까운 친족관계라는 측면에서 생략되어 있다는 점은 어색하다. 원셈어와 모음과의 관계에서도 원셈어 a가 히렉, 슈바, 하텡-파타흐로, 원셈어 i가 파타흐, 혹은 슈바로, 원셈어 u가 하텡-카메츠로 변하는 예는 설명에서 빠져 있다(pp.41-43). 원셈어와의 비교에서 단순 비교에 그치고 있다는 점은 아쉽다. 어떻게 원셈어에서 현재의 히브리어 자음과 모음의 형태로 발전되어 왔는가에 대한 설명이 첨가되었더라면 히브리어의 특징을 보다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었을 것이다.

### 3.2. 형태론

정관사의 하(ha)+중복점에 대해, 별다른 근거 없이 “그 뒤에 오는 자음에 어떤 힘을 더해 주어 중복현상을 일으킨다”고 설명한다(p.117-118). 일반적으로 중복점의 등장에 대해 아랍어의 정관사 'al'에 비추어 라메드가 뒤의 자음에 동화되면서 중복점이 온다고 설명하거나, 아랍어의 지시대명사 hādā ‘이것’과 관련지어 설명하기도 한다. 그러나 중복점의 정확한 기원은 알 수 없다. 정관사는 아카드어, 우가릿어, 게에즈어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즉 정관사는 고대의 지시사에서 유래된 것으로, 후대의 셈어에 나타난다. 따라서 이것은 히브리어 자체 내에서 설명가능하기보다는 셈어와의 비교에서 유추해서 설명하는 편이 더 큰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

지시대명사에서 드문 형태로 나오는  $\eta$ 와  $\eta$ 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없다. 이 형태는 둘 다 북이스라엘 히브리어의 특징으로 설명될 수 있다. 페니키아어의 지시대명사는  $\eta$ 이며 두 단어는 열왕기하 6:19 및 호세아 7:16 등 북이스라엘 히

브리어 텍스트에 주로 등장하기 때문이다.

관계대명사  $\text{שׂוֹמֵר}$ 와  $\text{שׁוֹמֵר}$ 의 관계는 풀리지 않은 난제이다. 전자의 어원은 아카드어와 아람어에서 “장소”라는 뜻이며, 후자는 아카드어의  $\text{ša}$  아람어의  $\text{š}$ 에서 찾을 수 있다. 두 단어의 용례는 명확하게 구분되지는 않지만,  $\text{שׁוֹמֵר}$ 는 북이스라엘 히브리어 방언으로, 후대에 미쉬나 히브리어에서  $\text{שׂוֹמֵר}$ 를 대신하게 된다.

동사에서 ‘완료 및 미완료’라는 용어는 시상을 표현하는 것으로 히브리어 동사 체계의 복잡성을 담기에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많다. 이 점은 저자 자신도 적절치 않음을 인정하고 있다(p.386). 따라서 요즘에는 ‘접미 및 접두변화’라는 용어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즉 완료형의 경우는 어미에서 주로 변화하고, 미완료형은 단어의 앞에서 주로 변화하므로, 접미 및 접두변화라는 용어가 더 적절하다.

첨가된 눈(paragogic nun)에 대한 설명에서, “의도적인 고어체 사용이나 운율” 혹은 “서기관들이 더 완전하고 더 강조적이거나 두드러진 형태를 선호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p.145). 그러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나 설명이 제한되어 있다. 현존하는 칼 직설법 접두변화는 첨가된 눈이 없는 짧은 형과 첨가된 눈이 있는 긴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이 두 형태와 기능에 대해서도 서부셈어의 용법과 관련지어 논의가 되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그리고 성서 히브리어에서 두 형태가 어떻게 하나로 통합되었는지를 설명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text{שׁוֹמֵר}$ 의 히쉬타펠 형태(p.228)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우가릿 문서가 발굴되기 전에 발간된 BDB는  $\text{שׁוֹמֵר}$ 의 어근을  $\text{שׁוֹמֵר}$ 로 분류하고 히쉬타펠형으로 분석했다(BDB, 1005). 그러나 우가릿에서 이 단어의 어근은  $\text{חׁוֹמ}$ 이며, 아카드에서 발견되는  $\text{št}$  형태이다. 따라서 1990년도에 개정되어 나온 사전인 HALOT은 이 단어를  $\text{חׁוֹמ}$ 에 둔다(HALOT, 295-296). 저자도 이 단어의 원래 어근을 제시했지만, 옛어근을 새로운 어근으로 완전히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둔 채 약간의 설명만 덧붙인다.

이 책은 동사활용을 여덟 개의 형태로 분류한다. 태에 따라서 능동, 수동, 재귀로 분류하고 동작의 의미변화에 대하여 단순, 강의, 사역으로 분류한다. 그 가운데 재귀 동사의 사역형은 나오지 않음으로 8개의 형태가 된다. 그러나 이 책에서 전개되는 방식은 매우 혼란스럽다. 칼 형태를 다룬 다음에는 재귀형태인 니팔을, 피엘 다음에는 재귀형태인 히트파엘을, 히필 다음에 수동태로 들어가 푸알, 호팔, 칼 수동태의 순서로 다룬다. 이러한 전개 방식은 131페이지에서 제시한 도표의 순서와도 일치하지 않으며, 독자로 하여금 혼란을 불러온다. 능동, 수동, 재귀의 순서대로 다루었다면 독자들이 따라가기에 쉬웠을 것이다. 칼 미완료 동사변화(p.143) 다음에, 의지법이 권유형(1인칭), 지시형(3인칭), 도치바



브 미완료형, 명령형(2인칭)의 순서로 나온다. 이 가운데 도치바브 미완료형이 놓인 것은 어색해 보인다. 형태를 염두에 두고 순서를 결정한 것으로 보이지만, 완료형의 경우처럼 연이어 배치하는 편이 더 적절해 보인다.

### 3.3. 구문론

서평자가 알기로 구문론은 무라오카 교수의 주전공 분야이다. 그의 저서 *Emphatic Words and Structures in Biblical Hebrew*는 그동안 성서 히브리어 학자들이 소홀히 다루어 왔던 히브리어 구문론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킨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구문론에 관한 기념비적인 저작으로 남아 있다.<sup>10)</sup> 주용의 원 저작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을 수정한 곳은 바로 구문론이다.

히브리어 동사가 시제(tense)나 시상(aspect)이나 하는 주제는 히브리어 연구에 있어서 풀리지 않은 문제이다. 저자는 히브리어 동사는 과거, 현재, 미래의 시제와 양태나 시상을 동시에 표현한다고 전제한다. 즉 히브리어 동사 형태는 시제가 일차적인 기능을 하며, 시상은 2차적 기능으로 그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양태와 관련해 익톨의 형태에서 권유, 당위, 의지, 명령과 같은 의미를 표현한다고 본다(pp.398-414). 그러나 시제나 시상은 동사 형태 자체로서 구별할 수 있다기보다는 동사의 형태와 문장의 전후관계도 파악해야 그 실상을 이해할 수 있다. 아울러 시제와 시상은 내러티브, 대화, 시 등의 문학 장르에 따라서도 다소 차이가 난다.<sup>11)</sup> 바이톨 및 브카탈의 용법에 대해서도 바브 자체가 시제를 변화시키는 역할을 한다기보다는 ‘익톨’ 및 ‘카탈’ 형태 자체가 지닌 용법에서도 설명이 가능하며, 최근의 많은 연구가 이를 증명한다.<sup>12)</sup> 그런 의미에서 ‘시제의 도치’(p.422)라는 표현보다는 형태적으로 ‘바이톨’ 및 ‘브카탈’로 사용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인다.

구문론 부분은 형태론과 상당 부분 겹친다. 많은 경우 형태론과 구문론의 설명들이 중복된다. 구문론이란 문장을 구성하는 단어와 단어 사이의 관계를 일컫는 말이다. 그런 의미에서 명사, 대명사, 전치사는 형태론에서 이미 언급되어 있으며, 많은 주제와 논의가 중복된다는 느낌을 갖는다. 전치사, 접속사는 앞의

10) T. Muraoka, *Emphatic Words and Structures in Biblical Hebrew* (Leiden: Brill, 1985).

11) J. Joosten, “The Indicative System of the Biblical Hebrew Verb and its Literary Exploitation”, E van Wolde, ed., *Narrative Syntax and the Hebrew Bible* (Leiden: Brill, 1997), 51-71; “The Long Form of the Prefix Conjugation Referring to the Past in Biblical Hebrew Prose”, *HS* 40 (1999), 15-26.

12) 유윤중, “엘 아마르나 텍스트에 비추어 본 복서 썬어의 동사체계: 안손 레이니의 이론을 중심으로”, 『구약논단』 14 (2003), 173-195; 최명덕, “접두형 동사의 과거시제 사용”, 『한국기독교 신학 논총』 37 (2005), 67-87.

형태론에서는 불변화사 속에 포함시켜 논의하지만, 구문론에서는 독립시켜 3장에서 다룬다. 형태론에서는 정관사와 대명사, 동사, 명사, 불변화사(부사, 전치사, 접속사, 감탄사)의 순서로 되어 있지만, 구문론에서는 시제와 법(동사), 격, 전치사, 명사, 대명사, 일치, 절의 순서로 되어 있다. 순서가 일관성이 없이 나열되어 있다 보니 구체적인 논리적 연결점을 찾을 수 없고 독자들에게 혼란을 준다.

구문론 제7장의 ‘절’ 부분은 무라오카의 공헌이 가장 두드러진 곳이다. 게세니우스나 왈키/오코너의 책과도 비교해 볼 때 매우 다양하며 정교하게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인도-유럽어의 구문론에 입각한 현대 히브리어의 절 분류방법의 성과들을 성서 히브리어에 도입해 분류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지나치게 자세한 구분은 그 근거나 기준이 모호할 때 주관성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 일반절과 특수절의 용어는 왜 ‘일반’이고 왜 ‘특수’인가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명사절은 일반적이고, 상황절은 왜 특수인가? 저자 자신도 인정하듯 목적절과 결과절의 구분은 모호하다(p.693). 또한 결과절, 인과절, 설명절의 구분은 의미상 구분이 문법적 구분을 가능케 할 정도로 뚜렷한 표지가 없다. 즉 모호하며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사실 전통적인 히브리어 문법학자들은 구문론에 큰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였다. 그러나 최근의 많은 연구는 전통적인 개념에서의 설명보다는 보다 혁명적인 제안들을 많이 하고 있다. 무라오카는 구문론에 큰 공헌을 했지만 자신의 작품을 많이 반영시키지는 않고 있다. 또한 바브 연속법,<sup>13)</sup> 시제와 시상,<sup>14)</sup> 양태,<sup>15)</sup> 초점화에 관련된 주제<sup>16)</sup> 등 구문론에 관한 최근의 논의는 이 책에 반영되

13) J. Joosten, “Biblical Hebrew wqtl and Syriac hwa qatel: Expressing Repetition in the Past”, *ZAH* 5 (1992), 1-14; “The Disappearance of Iterative WEQATAL in the Biblical Hebrew Verbal System”, Steven E. Fassberg and Avi Hurvitz, eds., *Biblical Hebrew in Its Northwest Semitic Setting: Typological and Historical Perspective* (Winona Lake: Eisenbrauns, 2006), 135-147; Victor Sasson, “The waw Consecutive/waw Contrastive and the Perfect”, *ZAW* 113 (2001), 602-617.

14) 이 부분에 대한 최근의 평가에 대해서는 Garr의 다음의 글을 보라. W. R. Garr, “Introduction”, S. R. Driver, *A Treatise on the Use of the Tenses in Hebrew and Some Other Syntactical Questions* (Grand Rapids: Eerdmans, 1998), i-lxxxvi. 또한 다음을 참고하라. E. Talstra, “Tense, Mood, Aspect and Clause Connection in Biblical Hebrew: A Textual Approach”, *JNSL* 23 (1997), 81-103; J. A. Cook, “The Hebrew Verb: A Grammaticalization Approach”, *ZAH* 14 (2001), 117-143.

15) Galia Hatav, *The Semantics of Aspect and Modality: Evidence from English and Biblical Hebrew* (Amsterdam; Philadelphia: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1997).

16) Douglas Lee Kasten, *Salience in Biblical Hebrew Narrative* (Arlington: University of Texas at Arlington, 1994); Francis I. Andersen, “Salience, Implicature, Ambiguity, and Redundancy in Clause-Clause Relationships in Biblical Hebrew”, Robert D. Bergen, ed., *Biblical Hebrew and Discourse Linguistics* (Dallas: Summer Institute of Linguistics, 1994).

어 있지 않다.

### 3.4. 특징

이 책이 지닌 최고의 특징은 풍부한 정보이다. 참고 도서로서의 성서 히브리어 가운데 모든 주제에 대해 가장 폭넓고 확대된 논의를 보여주며, 많은 각주와 참고 도서는 다양한 견해와 의견을 제공하고 있다. 대부분의 부분에서 자세한 설명뿐만 아니라, 풍부한 예를 제시함으로써 구체적인 이해를 제공하고 있다.

2012년 현재 히브리어 학계는 성서 히브리어를 평면구조로 두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입체적인 각도에서 다양하게 논쟁을 벌이고 있다. 주옹-무라오카의 히브리어 문법 설명은 히브리어 문법의 통시적(diachronic) 측면과, 공시적(synchronic) 측면의 다양성에 대한 설명이 없이, 성서 히브리어를 단면으로 인식하고, 평면 위에다 두고 분류하며 설명하고 있다. 보다 명확하게 마소라가 이해했던 히브리어 문법체계의 복원에 목적을 두면서, 그 이전의 히브리어 전통과 소통하고자 한다. 서두에서 밝힌 대로 이 책의 접근 방법은 공시적이며 기술적 서술형태를 취한다. 이는 성서 히브리어의 역사적 다양성과 역동성을 담아내는 데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관련된 셈어와의 연계와 쿨란 히브리어와의 비교도 엄격하게 제한하면서, 성서 히브리어에만 집중하고 있다. 즉 셈어와의 비교를 통한 히브리어의 설명 또한 절제되어 있다. 이는 비교 셈어학자로서 주옹이 시도했던 원 책의 방법론과도 거리가 있다. 서평자는 비교 셈어 전공이다. 비교 셈어학자의 입장에서 보아, 이 책의 설명 가운데 많은 부분은 간단하게 설명될 수 있는 많은 문제들을 히브리어 내에서 설명하려 하다 보니, 여전히 설명되지 않은 많은 난제를 남겨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4. 김정우 교수의 한국어 번역본에 대한 서평

히브리어는 셈어에 속하며, 우리가 의존하는 대부분의 문법은 인도 유럽어족 언어 분석에 사용된 개념이나 용어를 빌려와서 설명한다. 이것을 한국어로 번역한다는 것은 인도유럽어, 히브리어, 영어를 거쳐 한국어에 이르는 몇 단계를 거쳐야 하는 작업이다. 영어는 차치하고라도 히브리어와 한국어의 차이는 너무나 커서 한국어의 개념으로 다 설명하거나 담을 수 없다. 더군다나 주옹-무라오카의 책에 사용된 용어들은 히브리어, 영어, 독일어, 아랍어, 라틴어, 그리스어, 시리아어 등 수많은 언어에서 나온 용어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러한 용어들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데는 필연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될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히브리어를 설명하는 데 필요한 한국어 용어들은 아직 통일된 것이 없다. 학자들마다 저마다 다른 용어와 발음을 사용하다 보니, 히브리어에 미숙한 독자들은 혼란을 가질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명사의 형태는 absolute와 construct라는 두 형태로 나뉜다. 전자는 ‘절대형’으로 통일된 용어로 이용되는 반면, 후자에 대한 번역은 ‘연결형,’ ‘연계형,’ ‘구문형,’ ‘구성형’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다 보니 혼란이 야기될 수밖에 없다. 히브리어 1의 발음에 대해서도 ‘바브,’ ‘봐브’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된다. shewa의 발음에 대해서도 ‘스바,’ ‘쉐바,’ ‘슈바’ 등 통일된 용어가 없다.<sup>17)</sup> 따라서 번역본의 서론에서 히브리어 및 외국어 발음에 대한 원칙을 제시하고, 그 원칙에 따라 표기했다라면 발음표기의 일관성에 더 큰 기여가 있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김정우의 번역은 히브리어를 설명하는 데 필요한 한국어 용어들에 대한 기준점을 제시함과 아울러 논쟁을 불러와 히브리어 용어 통일에 대한 계기를 제공할 것으로 본다.

전반적으로 김정우의 한국어 번역은 수려한 문체를 담고 있어 전문가들이 읽고 이해하기에는 불편함이 없다. 전통적인 용어들과 한문으로 구성된 용어들이 책의 가치를 시대를 넘는 고전으로 승격시킬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의미가 함축된 어휘를 사용하다보니 풀어서 설명하는 것보다 의미전달이 다소 미흡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단점도 지닌다. 특히 요즘의 신세대 독자들에게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을 것이다.

#### 4.1. 용어에 대한 논의와 제안

phonology에 대한 번역을 ‘음성론’으로 했지만, ‘음운론’이 더 적절하다. 음운론과 음성론의 차이를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어렵다. 음성론은 소리의 형성에 대한 이론적 연구인 반면, 음운론은 음운 조직 및 체계, 역사적 변화과정에 대한 이론적 고찰이다. ‘음성론’은 영어 phonetics에 대한 번역으로 사용되며, phonology에 대한 번역은 ‘음운론’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 책의 phonology 부분은 음성론과 음운론의 내용 모두를 포함하고 있지만, 히브리어 발음을 분류하고 이론화하는 데 더 초점을 두고 있어 ‘음운론’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타당해 보인다.

17) 이 책에서도 쉘바의 발음에 대해서는 일관성이 부족하다. ‘브가드크파트’(p.29), ‘베카탈티’(p.434) 사이에는 둘 다 슈바의 초성이지만 다르게 표기되어 있다. ‘슈바’라는 발음 역시 이 일관성에서 벗어나 있다.

allophone에 대한 번역을 ‘변이 음소’로 했지만, ‘변이음’이 더 타당하다. ‘음소’란 의미의 구별을 가능하게 하는 소리의 최소단위이며, allophone은 하나의 음소 내에서 환경에 따라 다르게 나오는 소리를 의미한다. 변이음은 음소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의미에 변화를 가져올 정도로 독립적인 음가를 떨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변이 음소’라는 말은 상호 모순적이다. ‘음소’란 독립적인데 반하여, ‘변이’는 독립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변이음’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남녀 공통으로 사용되는 용어 common에 대한 번역으로 ‘공성’(p.141)을 썼다. 의미는 ‘공통된 성’을 뜻하므로 의미전달은 더 명확하게 들리지만, 아직 우리말에 없는 단어로 조합된 것이어서 매우 어색하게 들린다. 현재의 독자들에게는 ‘공통’으로 번역하는 편이 더 적절하다.

modality에 대한 번역을 ‘서법성’(p.130)으로 했지만, ‘양태’가 더 타당하다. modality란 언어학에서 사건의 존재론적 성격에 대한 화자의 의지표현과 관련된 범주를 뜻하는 영역이다. 즉 시제와 시상의 주제와 연결되어 있는 주제이기도 하다. mood는 ‘법’으로 번역이 되고 법의 종류는 직설법, 가정법, 명령법 등이 있다. 따라서 modality는 현실성이나 비현실성, 확실성과 가능성, 소망이나 요구와 관련되어 표현되는 형태나 양태를 의미한다. 따라서 ‘양태’로 번역하는 것이 일반 언어학 이론에 더 어울리며, 히브리어에도 마찬가지로이다.

casus pendens를 ‘고리형’이라고 번역했다(p.491, 643). 이 용어는 라틴어로 ‘걸려 있는 격’ 즉 무슨 격인지 결정할 수 없을 때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된다. 영어로 번역된 표현은 hanging case이다. 주로 절의 앞에 존재하며, 주격, 속격, 대격 등을 결정할 수 없을 때를 가리키는 용어이다. ‘고리형’이라는 번역은 그 의미를 전달할 수 없다. 영어에는 분사 구문에서 우리말로 ‘현수 분사’라는 용어를 쓴다. 그 단어를 차용하여 ‘현수격’이라고 번역하면 ‘현수막’, ‘현수교’ 등으로부터 그 의미를 유추할 수 있어, 이해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4.2. 번역에 대한 대안 제시

‘고유명사 다음에 나오는 속격’(p.529)이라는 표현은 설명으로 보아 ‘고유명사 앞에 나오는 속격’ 혹은 ‘고유명사의 속격 사용’을 다 포함하는 용어이다. 따라서 ‘고유명사와 속격 사용’으로 수정하면 두 용례를 다 포함시킬 수 있다.

ultima는 ‘얼티마’로 penultima는 ‘펜얼티마’(p.63)로 단순히 음역으로 처리했다. 그러나 이 부분도 우리말의 용어로 ultima는 ‘미음절’(尾音節)로 penultima는 ‘어미에서 둘째 음절’로 풀어서 번역하는 것이 독자들의 이해에도

음이 될 것이다.

virtual gemination(p.62, 118 등)은 ‘가상 중복’으로 번역했다. 이 용어는 ‘사실상의 중복’이 더 적합해 보인다. 이 용어는 정관사의  $\pi$ 와  $\pi$ 로 시작하는 단어 앞에 정관사가 올 때, 후음이라 중복점을 취할 수 없으므로 정관사가 단모음 ha가 된다. 이것은 히브리어 음절 구성 원칙을 어긴 것이다. 열린음절에서 C+V에서 V는 단모음을 취할 수 없는데 왔으므로, 그 뒤의 자음인  $\pi$ 나  $\pi$ 가 사실상 중복점을 취한 것으로 보아 ‘virtual gemination’이라고 부른다. ‘가상적’이 아니라 ‘사실상의’ 중복이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가상의’라는 의미보다는 ‘사실상의’라는 뜻이 더 적합하다.

‘불변화사’(p.356)와 ‘불변사’(p.528): 이 두 단어는 particle에 대한 번역이지만 용어가 통일이 안 되어 있다. ‘불변화사’로 통일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 4.3. 주제 색인 및 히브리어 문법 해제 첨부

주제 색인의 순서는 영어순이다. 한국어로 직접 찾을 수 없다. 영어를 유추해서 찾아야 한다. 한국어 번역본이므로 한국어를 중심으로 주제 색인을 제시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아울러 다양한 문법용어들에 대한 해제작업이 필요해 보인다. 이는 왈키/오코너 및 메르베/나우데/크로에제의 책 뒤에 첨부된 것을 참고해 덧붙이면 훌륭한 해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말 번역에 쓰인 단어를 중심으로 문법 용어들을 통일화하고 이에 대해 설명해 준다면 보다 폭넓은 독자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5. 맺는 말

#### 5.1. 셈어와 관련된 논의의 한계점

히브리어는 셈어에 속한다. 1923년 주옹의 문법책이 발간될 당시에는 사해 사본 및 우가릿어가 발굴되기 전이었으며, 지난 90년 동안 축적된 셈어의 연구 결과는 히브리어의 문법을 훨씬 더 풍부하게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책은 셈어나 기타 히브리어 텍스트와 관련된 논의가 매우 제한되어 있다. 그런 의미에서 히브리어 자체 내에서 재구성(internal reconstruction)을 한다는 의미는 있지만, 셈어와의 비교(comparative grammar)를 통한 풍부한 이해에는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 5.2. 신구 문법의 불편한 동거

1923년의 문법책을 개정한 것이므로, 이 책의 기본적인 골격은 옛 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거기에 수많은 손질을 가해 현재의 모습으로 탄생시켰다. 그러므로 위에서 지적한 낡은 골격으로 다 담을 수 없기에 최근의 다양하고도 역동적인 연구 결과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즉 신구 간의 다소 어색한 조합처럼 느껴지는 부분들이 많다.

## 5.3. 의의

다소의 문제점은 어떤 종류의 책이라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기에 방대한 분량의 이 책이 갖는 의의는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어떤 종류의 책이든 완전하지는 않기 때문이며, 이 책이 갖는 장점이 약간의 문제점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크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방대한 정보를 나름대로 체계화시켜 담고 있다는 의미에서 이 책의 활용 가치는 적어도 앞으로 100년 이상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히브리어에 관한 지식을 전달할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나온 참고용 히브리어 문법책으로는 최고의 고전이 될 것이며, 미래를 열어 가는 데 선구자 역할을 할 것이다.

‘교회는 한국에 있지만 신학은 일본에 있다’라는 말은 농담이라고 하지만, 학문에 대한 한국교회의 열악한 관심과 환경을 반영해 왔다. 그러나 2012년 현재, 한국 신학계, 구체적으로 성서학계의 발전은 괄목할 만한 양적, 질적 성장을 거듭해 왔다. 히브리어 분야에서도 많은 전공자들이 나와 학계에서 직간접으로 활동하고 있다. 하지만 BDB, HALOT, TDOT와 같은 히브리어 사전의 번역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에 김정우의 『성서 히브리어 문법』 번역 출판은 앞으로 전개될 한국 히브리어 학계의 토대를 놓은 역작임에 틀림없다. 김정우는 이 책의 서론에서는 자신의 작업으로 시시포스(시지푸스) 신화가 끝났다고 표현한다. 하지만 서평자가 보기에는 끝난 것이 아니다. 후학들은 더 큰 바위를 굴리면서 불굴의 의지로 새로운 시시포스(시지푸스) 신화를 써 나가야 할 것이다.

10여 년 전에 서평자는 무라오카 박사가 한국에 와서 성서공회에서 구약학회가 주최했던 논문 발표에 대해 논찬과 통역을 맡았던 적이 있다. 그때 그는 이런 말을 했다. “한국이 세계적인 전자제품을 잘 만드는 것처럼, 히브리어 연구에도 세계적인 작품을 이루기 바란다.” 서평자는 한국의 성서학도들이 히브리어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무라오카의 바램이자 성서를 사랑하는 우리 땅의

모든 사람들의 소망을 현실화하는 데 애써 줄 것이라고 믿는다. 그 과정에서 김정우 교수가 번역한 주옹-무라오카의 『성서 히브리어 문법』 책의 공헌은 빠짐 없이 언급될 것이며, 그 수고와 노력은 한 알의 썩어진 밀로 후학들에게 세세토록 기억될 것이다.

<주요어>(Keywords)

성서 히브리어, 철자법, 음성론, 형태론, 구문론.

Biblical Hebrew, Orthography, Phonetics, Morphology, Syntax.

(투고 일자: 2012년 7월 16일, 심사 일자: 2012년 8월 17일, 게재 확정 일자: 2012년 8월 17일)



<참고문헌>(References)

- 유윤종, “구약성서 히브리어 변이의 구성요인들과 지역방언과의 관계에 관하여”, 「구약논단」 9 (2000), 289-309.
- 유윤종, “엘 아마르나 텍스트에 비추어 본 북서 셈어의 동사체계: 안손 레이니의 이론을 중심으로”, 「구약논단」 14 (2003), 173-195.
- 최명덕, “접두형 동사의 과거시제 사용”, 「한국 기독교 신학 논총」 37 (2005), 67-87.
- Andersen, Francis I., *The Hebrew Verbless Clause in the Pentateuch*, JBL Monograph Series 14; Nashville: Abingdon Press, 1970.
- Andersen, Francis I., “Salience, Implicature, Ambiguity, and Redundancy in Clause-Clause Relationships in Biblical Hebrew”, Robert D. Bergen, eds., *Biblical Hebrew and Discourse Linguistics*, Dallas: Summer Institute of Linguistics, 1994.
- Blau, J., “Marginalia Semitica III”, *IOS* 7 (1977), 14-17.
- Cook, J. A., “The Hebrew Verb: A Grammaticalization Approach”, *ZAH* 14 (2001), 117-143.
- Garr, W. R., “Introduction”, S. R. Driver, *A Treatise on the Use of the Tenses in Hebrew and Some Other Syntactical Questions*, Grand Rapids: Eerdmans, 1998, i-lxxxvi.
- Hataf, Galia., *The Semantics of Aspect and Modality: Evidence from English and Biblical Hebrew*, Amsterdam; Philadelphia: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1997.
- Joosten, J., “Biblical Hebrew wqtl and Syriac hwa qatel: Expressing Repetition in the Past”, *ZAH* 5 (1992), 1-14.
- Joosten, J., “The Indicative System of the Biblical Hebrew Verb and its Literary Exploitation”, E van Wolde, eds., *Narrative Syntax and the Hebrew Bible*, Leiden: Brill, 1997, 51-71.
- Joosten, J., “The Long Form of the Prefix Conjugation Referring to the Past in Biblical Hebrew Prose”, *HS* 40 (1999), 15-26.
- Joosten, J., “The Disappearance of Iterative WEQATAL in the Biblical Hebrew Verbal System”, Steven E. Fassberg and Avi Hurvitz, eds., *Biblical Hebrew in Its Northwest Semitic Setting: Typological and Historical Perspective*, Winona Lake: Eisenbrauns, 2006, 135-147.
- Kasten, Douglas Lee, *Salience in Biblical Hebrew Narrative*, Arlington: University of Texas at Arlington, 1994.
- Malone, Joseph L., *Tiberian Hebrew Phonology*, Winona Lake: Eisenbrauns, 1993, 151-155.

- McFall, L., *The Enigma of the Hebrew Verbal System*, Sheffield: Sheffield University Press, 1982.
- Muraoka, T., *Emphatic Words and Structures in Biblical Hebrew*, Leiden: Brill, 1985.
- Niccacci, Alviero, *The Syntax of the Verb in Classical Hebrew Prose*, W. G. E. Watson, trans., JSOTSS 86; Sheffield: JSOT Press, 1990.
- Robertson, David, *Linguistic Evidence in Dating Early Hebrew Poetry*, Atlanta: SBL, 1972.
- Sasson, Victor, “The waw Consecutive/waw Contrastive and the Perfect”, *ZAW* 113 (2001), 602-617.
- Talstra, E., “Tense, Mood, Aspect and Clause Connection in Biblical Hebrew: A Textual Approach”, *JNSL* 23 (1997), 81-103.

<Abstract>

**Book Review-*A Grammar of Biblical Hebrew***

(Paul Joüon and T. Muraoka, Jung Woo Kim, Trans., Seoul: Gihon, 2012)

Prof. Yoo, Yoon Jong  
(Pyeongtaek University)

This review essay purposes to provide major contents and comments on the recent Korean translation of the book by Jouon-Muraoka, *A Grammar of Biblical Hebrew*. Its translator, Jung Woo Kim explained how difficult it has been to translate this book for the last ten years by comparing his translation work to the toil of Sisyphus in the Greek myth. It should be celebrated by Korean readers interested in the usages of Hebrew language in the Bible and be expected to revive Hebrew study in Korea.

This essay contains three major parts in addition to the introduction and the conclusion. The first part (chapter 2) provides the summary and outline of the book, the second part (chapter 3) reviews Joüon and Muraoka's English version, and the third part (chapter 4) deals with Jung Woo Kim's Korean version.

The distinguished features of Joüon and Muraoka's English version are as follows: 1) It is the most comprehensive and voluminous book on the grammar of the Biblical Hebrew, 2) It focuses mostly on the synchronic dimension of Biblical Hebrew grammar, restricting itself to reconstructing the grammar of Tiberian Hebrew scholars, thus neglecting the diachronic dimension and variations of the synchronic approach such as the northern dialect of Biblical Hebrew. The explanations by the comparison with other semitic language are not reflected sufficiently to satisfy comparative semitic scholars, 3) It provides the detailed information on the syntax of Biblical Hebrew grammar by adopting the linguistic methodology of Indo-European language.

Jung Woo Kim's Korean version would be welcomed by Korean readers and become a monumental achievement in the history of Korean Hebrew studies. First of all, it would encourage Korean scholars to standardize Korean terms on Biblical Hebrew. Second, it would stimulate students of Hebrew language to provoke greater interest in the deeper level of the Bible as well as reviving Hebrew studies in Korea.